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	
	보도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
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분석국	윤형준 팀장(3145-8323), 김혜선 선임조사역(3145-8326)
	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	황우경 부장(3774-9360), 안길현 팀장(3774-9374)

제 목 : 원자재 ETF·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

■ 소비자경보 2022 - 3호

등급	주의 경고 위험
대상	원자재 관련 ETF·ETN 투자자

소비자경보 주요 내용

-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원자재 시장*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와 연계된 ETF·ETN의 투자위험도 확대

* WTI 원유선물 가격(달러/배럴) : (1.31) 88.15 → (2.28) 95.72 → (3.8) 123.70 → (3.15) 96.44
 니켈 가격(달러/톤) : (1.31) 22,800 → (2.28) 25,240 → (3.8) 48,201 → (3.15) 48,196

- 일부 원유 ETN*이 괴리율 확대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, 니켈 인버스 2X ETN**은 가격 급변으로 거래정지

*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선물 ETN(H)(‘22.3.16. 투자유의종목 지정)

**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(H)(‘22.3.8. 거래정지)

-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

- 그럼에도 3월초 원자재 관련 ETF·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*이 2월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

* 개인투자자 일평균 거래금액 : (‘22.2월) 336억원 → (‘22.3.1~11) 948억원 (182% ↑)

- ➔ 원자재 관련 ETF·ETN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

1 발령 배경

□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*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된 ETF·ETN의 거래량이 급증

* WTI 원유선물 가격(달러/배럴) : (1.31) 88.15 → (2.28) 95.72 → (3.8) 123.70 → (3.15) 96.44
 니켈 가격(달러/톤) : (1.31) 22,800 → (2.28) 25,240 → (3.8) 48,201 → (3.15) 48,196

- 원자재 관련 ETF·ETN의 '22.3월(3.1~11일)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1,752억원으로 '22.2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(620억원) 대비 183% 급증
- 이중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48억원으로 2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(336억원) 대비 약 3배(182%)로 증가
- 개인투자자는 주로 원유 상품(71.5%)을 거래하고 있으며, 특히 고위험 (인버스)레버리지(±2배) 상품에 대한 거래가 46.8%를 차지

원자재 관련 ETF·ETN 거래 현황



□ 개인 매수가 많은 원유 관련 ETF·ETN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괴리율*이 10%를 초과하기도 하였으며, 일부는 투자유의종목**으로 지정

*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원유 관련 ETF·ETN의 괴리율 : 9.37%~13.77% 수준('22.3.10일 기준)
 **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선물 ETN(H)('22.3.16.)

- “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(H)”은 니켈가격 폭등으로 기초자산인 인버스 2X 니켈 선물지수의 산출이 어려워 거래소가 거래를 정지('22.3.8.)

⇒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ETF·ETN 투자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
2 투자자 유의사항

- 가.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관련 국제문제 해소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
나.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·ETN에 대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
다.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
라.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매매와 관련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할 필요

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관련 국제문제 해소 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.

-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
- 이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하거나 불투명한 정보에 기반하여 접근할 경우, 급격한 시장변동*으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
- * (예) WTI원유 가격은 對러 제재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로 2.25~3.8일 중 35.1% 급등하였으나, 아랍에미리트(UAE) 등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감으로 이틀(3.9~10일)만에 14.3% 급락
- 따라서 개인투자자,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투자자들은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 투자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

나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·ETN에 대한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-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·ETN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(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)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
- 현재와 같이 변동성 높은 원자재 시장 상황하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*될 우려
- * (예)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통상적 ETF·ETN의 가격제한폭은 30%이나 레버리지형은 원래 가격 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 배율이 적용되므로 가격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우려

- 특히 기초자산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경우,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·ETN는 상품 특성상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“복리효과(Compounding Effect, 아래 참고)”가 발생
-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·ETN 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

<예시>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·ETN의 “수익률 복리효과(Compounding Effect)”

-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의 하루 변동률에 일정 배수로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
-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상황에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누적 수익률이 투자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복리효과 발생
- 예를 들어, 기초자산 가격이 100에서 80(20%↓)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100(25%↑)으로 상승한 경우, 2배 레버리지 ETF·ETN의 가격은 100에서 60(40%↓)으로 하락한 후 다시 90(50%↑)으로 상승
- ⇒ 이때 2일간의 기초자산의 누적수익률은 0%인 반면 레버리지 ETF·ETN는 10% 손실이 발생하며, '인버스', '인버스 레버리지' 상품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발생

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·ETN의 복리효과(예시)

구 분	T	T+1	T+2	수익률
기초자산의 가격	100	80 (20% ↓)	100 (25% ↑)	0%
레버리지 ETF·ETN(2배)	100	60 (40% ↓)	90 (50% ↑)	-10%
인버스 ETF·ETN(-1배)	100	120 (20% ↑)	90 (25% ↓)	-10%
인버스 레버리지 ETF·ETN(-2배)	100	140 (40% ↑)	70 (50% ↓)	-30%

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, ETF·ETN의 괴리율*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

* 괴리율은 ETF·ETN이 거래되는 시장가격과 ETF·ETN의 내재가치간의 차이를 의미

- 괴리율이 양수(+)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고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

- 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
- 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*

* '20.4월 WTI원유 선물 ETN의 괴리율이 이례적으로 폭등하여 2차례에 걸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사례가 있음('20.4.9, '20.4.23)

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매매와 관련한 거래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·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,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, 투자시 사전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(KIND)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

<참고> 한국거래소의 원자재 ETF·ETN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현황

- "대신 인버스 2X 니켈 선물ETF(H)"은 기초자산*의 증가('22.3.8.)가 '0'이 됨에 따라 내재가치 산출이 불가하여 거래정지

* S&P GCSI Nickel 2X Leverage TR(니켈 가격의 -2배를 추종하는 선물지수)

- '22.3월 중 원유 관련 ETF 3개는 괴리율이 12%를 초과하여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되었으며, "대신 인버스 니켈 선물ETF(H)"은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1일 거래정지

* 거래소는 해외기초자산에 연계된 ETF·ETN의 괴리율이 12%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위한 대상종목으로 적출하고, 이후에도 10거래일 이내 12%를 초과하면 지정예고, 10거래일 이내 12% 재초과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시행

'22.3.1~16일 중 투자유의종목 등 관련 공시 현황

구분	종목명	공시일자	내용	사유
니켈	대신 인버스 2X 니켈 선물ETF(H)	3.8	거래정지	기초자산 증가 '0'
니켈	대신 인버스 니켈 선물ETF(H)	3.11, 3.16	1일 거래정지	시장상황급변 등
원유	QV 인버스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ETF(H)	3.3	투자유의종목 적출	괴리율 12%초과
원유	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ETF	3.10	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	괴리율 12%초과
원유	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ETF(H)	3.16	투자유의종목 지정	괴리율 12%초과

-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·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,
 - 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
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<http://www.fss.or.kr>, <http://www.krx.co.kr>)